

가장 큰 이유는 술의 주재료인 곡물
특히 쌀이나 보리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왕들이었나 싶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해를 대비하여
가축 소모를 미리 막자는 것이었죠.

먹을 곡식도 부족할 상황에서

사치스럽게 술을 빚어
마시는 것 자체를 경계한 것이죠.

금주령은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129번이나 언급됩니다.

태조 4년부터 금주령을
마련하게 되는데

결국 정조 때에 가서 완화되고
마지막 왕인 순종 때까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금주령에도 예외는 있었는데

임금이 베푸는 연회, 국가 제사,
술 빚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

부모·형제를 맞이하거나
약으로 마실 때였죠.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주령에도 이런 비리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금주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탁주를 마신 자들은 잡혀가고'
그 뜻은 뭐냐?

'청주를 마신 자는 잡혀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청주를 마시고
서민들은 막걸리를 마시는데

돈이 많으면 잡혀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세종은 금주령을 내릴 때마다

청주를 마시는
양반 사대부는 거르지 않고

탁주를 마시는 백성이나

사고과는 자들만
거르는 것을 비판했던 것이죠.

즉 이때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주령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산
조선 시대의 최장수 왕인데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평생
한약을 달고 산 약골이었습니다.

체질적으로 냉한 몸을 보완하려고

따뜻하고 매운 음식과
그리고 이중탕을 복용했죠.

아마 건공탕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조에게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나라를 세운 공로가 있는 약'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공탕입니다.

영조는 음식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소식을 했고 기름진 음식과 술을
피하는 절제된 식생활을 했는데

꼭 챙기는 것이 뭐였냐 하면
이 삼시 세끼였습니다.

심지어 아들 사도세자가
죽는 날에도 말이죠.

각 잡힌 이런 성정만큼 술에 관한 한
굉장히 엄격했는데요.

재위 기간 52년 동안
무려 50년 넘게 금주령을 시행했죠.

이 금주령을 어겼단 이유로
최초로 사형까지 당한 일이 생깁니다.

영조는 제사 때도
술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술을 쓰지 말고
식혜를 쓰라고 했습니다.

집 안에 술 항아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주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형시키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병마절도사
윤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직접 사형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 금주령을 위반했는데도
살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조는 금주령을 위반한
유세교라는 사람을 잡아 오게 했어요.

시장에서 술을
팔았다는 것이 죄목이었죠.

유세교란 인물은 술이 아니라
식초라고 바둑바둑 우겼는데

관리들은 고문하면서 자백을 받고
사형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영조가 보기에 그 사람이
좀 불쌍하게 느껴진 거예요.

유세교는 시골에 살아서

금주령이 내려진지도
모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바로 민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우의정 김상로에게
술맛을 보라고 하는데

영조의 의중을 파악한 김상로는
술맛이 나지만 식초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유세교는
석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까 영조는
절대로 술을 안 마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록에 보면
영조도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하들 몰래.

실록에 보면 조명겸이란 신하가
영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간에 술을 드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조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조가 한마디 하죠.

"내가 마시는 건 술이 아니라
오미자차다."

아마 이게 오미자차가 아니고

오미자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있고요.

의혹만 무성하게 남았는데

후대는 영조의 비굴한 변명이 아닐까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조가 금주령으로
뽄뽄뽄뽄 절대로 술을 못 먹게 하는데

이것을 푼 것이 누구냐

바로 영조의 손자인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였던
영조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정책도 계승했지만 유일하게
금주령에 대해선 완화를 했죠.

53년 만에 금주령 시대가 끝납니다.

정조는 술과 담배를 즐기는 파였습니다.

어느 날 우의정 김희소는
흉년 때문에 금주령을 건의하죠.

그런데 정조는 거부합니다.

본인이 술을 좋아하기도 했고

영조 때 보니 금주령이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몇 번의 금주령을
내리기는 합니다.

"한성부에 명해서
술 빙기를 금지하라, 흉년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시키거나
귀향 보내는 일은 없었던 거죠.

때문에 도처에 주막이 발달하고

술안주였던 고기나 생선값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그 문화가 남아있어서
바가 지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일 만에 금주법 철회를 준비하죠.

그렇게 15년 만에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폐지의 이유는 파시즘의
위협에 대비하고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라고 했지만

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진짜 애주가였습니다.

유명한 007 칵테일 있죠, 마티니.

이 마티니를 안 마시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심지어 저녁에 각료회의가 있으면
항상 저녁 식사 하기 전에

루스벨트가 직접 마티니라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충남 서천의 '한산소곡주'입니다.

우희열 명인이 빚는 술이고요.

이 술은 가장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죠.
바로 '얹은뱅이 술'입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던 유생이
이 술을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것을 잊은 채

얹은뱅이가 되어서 계속 마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술이죠.

그만큼 뭐냐,
굉장히 맛이 달콤합니다.

특징이 이 술을 빚을 때
붉은 홍고추를 넣는데요.

그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액운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홍고추의 붉은색이
액운을 물리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색은
붉은색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